

기본

시나리오 이름 : 『클래식 모방 사건』 ~ 백조의 호수편 ~

부모님의 감시 하에 방에 홀로 남아있던 여자아이가 집에서 증발했다.
이즈와리는 이를 자신의 마법으로 아이는 백조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는데 낭만을 가장한 이즈와리를 뜯어내어 아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기본룰북만을 이용한 초급자 대상으로 작성한 시나리오입니다.
PC 3~4명을 추천드립니다.

시나리오 개요

러시아의 한 주택가.

이 집안에는 외동딸이 하나 있다.

그 외동딸은 옆집의 외동아들과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다!!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으나 들통이나 매일을 엄격한 부모님 감시하에 지내게 된다.

그 날도 부모님과 다툼 피해자는 방에서 혼자 있었는데, 방에 잘 있나 들어온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더니 사라져있었다. 집 밖에도 눈으로 쫓아있어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고, 아이를 못봤냐고 물어보러 찾아갔더니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아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이즈와리는 자신의 마법으로 그녀를 백조로 만들어 날아서 나갈 수 있게 해주었고 이윽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천국으로 보내주었다고 각색했다.

시나리오 무대

20세기 러시아의 작은 마을.

마을 대다수는 주택가지만 다소 떨어져있다. 땅 자체는 넓지만 가구수가 많지 않아 동네 사람끼리 다 알고 다닌다. 사건은 눈이내리는 겨울 저녁식사시간 쯤에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라오사의 방.

집 내부 구조와 디자인은 대체로 외국 영화에 등장하는 주택구조를 상상하면 됩니다.

발레의 프리마

이즈와리는 라오사에게 기생하였다.

본체는 1악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커다란 악보형태. 악보에 적힌 각 음표들마다 입이 붙어있다. 특정한 의미 없는 게이름을 외치곤 한다. 악보에 연결된 자신이 꾸며낸 사건의 환상을 자신의 본체로 보이게끔 되어있다. 이번에는 피해자의 모습을 닮았지만 색이 정반대인 환상을 꾸며내었다. 음악 관련 각색을 하는 이즈와리들의 모임인 <심포니>의 소속이다.

↓참고 이미지(사용해도OK 아니어도 OK)

[다운로드](#)

사건의 도입

PC들의 영토에서 좀 떨어진 영지에서 이즈와리가 나타났다.

마침 해당 영지의 영주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고 이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PC들에게 토벌을 요청하였다.

GM은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각자 하고 싶은 일에 충실하던 나날.
당신의 뇌 안에 마법의 통신이 들어왔다. 기계음성 같은 여성의 목소리는 코토와리 시스템의 인공지능.
이 또한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다.
「영토 근방의 이즈와리의 출현을 탐지했습니다. 출현한 이즈와리는 『발레의 프리마』 최근에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허상급입니다. 즉시 프로젝트 참여 요청에 따라 시작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참가 요청에 응한 후, 당신의 주위에 텔레포트의 마법진이 전개되어간다.
마력의 분류를 타고, 당신은 자신의 저택에서 한순간에 코토와리 기관의 고성, 심의궁으로 이송되었다.

코토와리 기관내의 명성을 가진 마술사가 코토와리 기관을 거쳐 PC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마술사는 예술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실세계를 살피던 중 한 이즈와리 집단이 음악을
모티브로 각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상황을 눈치챈다.
그 이즈와리의 그 행태를 예술로 인정할 수 없었던 마술사가 심층부를 찾아보는 중, 제일 먼저 등장한
이즈와리, 발레의 프리마가 그 마술사의 영지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본인이 움직일 수 없으니
마법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토벌의 필요성을 알립니다. 이를 확인한 코토와리 시스템은 발생 지점
근방의 영주들에게 토벌 참가 요청 안내를 합니다.
이 상황을 유념하여 도입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조서와 회답 예시

조서 ①

범인은 「」다.

범인은 [라오사]다.
라오사 스스로가 부모님 모르게 방에서 탈출한 실질적으로는 가출사건이다.
각 캐스트의 입에서 라오사를 방에서 사라지게 할 이유는 충분하기에 다른 캐스트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조서 ②

피해자는 「」에 있다.

[이반의 집]에 있다. (명칭은 달라도 같은 장소를 지정하면 OK)
트릭이 따로 없는 사건이다. 기왕이면 오브젝트로 이반의 집의 문에게 질문하여 라오사의 방문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서 ③

범인에게는 「」이(가) 필요하다.

범인에게는 [이반과의 관계에 대한 부모님의 인정]이 필요하다. (의미만 맞다면 유사내용은 정답으로
인정)
가출한 가장 큰 원인은 사랑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였다.

조서 ④

피해자를 위해서 부모는 「」을(를) 해야한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조서입니다.

PL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조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조서3까지만 이용합니다.

반면구축

코토와리 시스템을 통한 반면구축이 가능합니다.

GM은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있던 풍경은 붉고 검은 입자가 되어 사라져 간다.

코토와리 시스템의 기계음성이 일대에 메아리친다.

「반면 구축을 개시. 좌표에 연결을 확인.

로딩중...

반면의 사상 구성 요소를 전개합니다.」

눈 앞에 나타난 것은 눈이 내리는 작은 마을.

시뮬레이션 된 각 집이 거리와 상관없이 마주보며 모습을 나타낸다.

GM은 계속해서 사건 보고서를 읽습니다.

이 사건보고서를 읽는 동안에는 PL로부터 어떤 질문이 있어도 회답하지 마세요.

또한 마술사는 반면 구축 장면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구축에서는 방관자가 되어 설명을 받습니다.

각색

사건 보고서 도중에 기록되어 있는 〈...지직〉 부분에 다다르면, 아래 이츠와리의 각색장면을 사이에 두고 읽어 내려가고, 이츠와리의 몽환적인 박력을 전하세요.

(각색의 내용은 백조의 호수의 분위기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방 안에는 홀로 남은 라오사가 창가에 기대고 있었다.

창 밖에는 몰아치는 눈보라가 눈 앞을 가리고, 마음에는 흘러내리는 눈물이 라오사의 눈 앞을 가린다.

“사랑하는데 만나지 말라니.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 이반.”

감정에 푹 빠져서 중얼거리는 말에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온다.

“도와줄까?”

“누...누구야?”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찾아보면 자신의 그림자 뿐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서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진다.

“나는 오딜. 나는 너야, 오테트”

“나는 오테트가 아니야! 그보다 어떻게 도와준다는거야?”

순진한 눈망울로 물어보는 말에 잠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라오사의 목소리로 말하던 그림자는 형태가 커져 색만 정반대인 라오사의 모습으로 변했다.

“내가 너인척 여기에 남을게. 우리는 똑같으니까 그 누구도 네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없을거야.”

“밖에는 눈이 가득 내려서 이 상태 그대로 이반을 쉽게 찾아갈 수 없어! 신발도 현관에 있는 걸.

들킬거야.”

“걱정하지마. 내가 너를 백조로 만들어 줄게. 자, 눈을 감고 하나,둘,셋을 세면 모습이 바뀔거야”
그 말에 순응하듯 라오사가 눈을 감으면 하얀 빛이 방안에 퍼지고 라오사는 새하얀 백조가 되어있었다.
그 백조를 품에 안은 오딜은 창문을 연다.
“네게는 나는 힘이 생겼어. 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입을 맞추면 이제 둘은 영원히 함께야”
날개짓을 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라오사를 웃으며 배웅하는 오딜은 창문을 닫고 중얼거린다.
“바보같은 오데트, 입을 맞추고 죽음을 끌어안아 천국에서 함께하는 연인이 되렴”
깔깔 웃음소리와 함께 오딜은 다시 그림자가 되더니 점점 색이 얼어지면서 사라졌다.

진상의 해석 방법

실종사건이 아닌 가출사건이다.

1층에 있는 라오사의 방의 창문은 라오사의 작은 체구로 우겨넣으면 어떻게든 충분히 나갈 수 있기에 그리로 빠져 나왔다. 그것을 덩치 큰 부모님들은 자신의 체구 기준에 맞춰 나갈 수 없다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라오사의 탈출시간과 부모님이 방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시간이 다소 차이가 난다. 라오사는 이반에게 연락해 탈출 예정을 알리고 이반이 집 앞에도착하자마자 방에서 나와 이반의 집으로 향했다. 예카테리나는 집에 라오사와 이반을 숨겨두고 있음에도 본 적없고 자신의 아들도 외출을 하고 돌아온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하였다.

날이 갓 눈이 계속 내리는 바람에 거실에 있던 알렉세이도 라오사가 움직임을 알 수 없었고, 저녁 식사시간이라 동네 주민도 목격자가 없던 것이 찾기 어려움에 영향을 주었다.

4시 경 : 예카테리나와 알렉세이가 라오사가 방에 있는 것을 확인. 그 후 알렉세이는 거실, 니나는 방으로 이동.

4시 30분 경 : 라오사가 이반에게 연락하여, 방에서 탈출한 뒤 만나고 이반의 집으로 이동. 이때 예카테리나는 라오사와 이반을 목격.

5시 경 : 니나가 대문까지 이어지는 복도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감.

6시 30분 경 : 라오사가 사라진걸 니나가 발견하여, 알렉세이도 라오사의 방으로 옴

7시 경 : 알렉세이와 니나가 예카테리나를 이반의 집 앞에서 만나 이반의 행방을 들음.

선언국면의 공략

초기선언 -

반면법칙 : 적과 흑의 법칙, 진실의 서, 숨겨진 방의 존재를 금지(숨겨진 방의 정의)

라오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선언마법 금지.

범인이란 라오사를 방에서 사라지게 한 인물을 지칭한다.

단, 같이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이반을 대상으로 하는 선언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추하면 빠른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다.

발레의 프리마와의 전투

[위력 : 2] [횡수 : 3] [현현 : 2] [진리 : 2(15·15)]

《퇴폐현현》 《천명현현》

이즈와리 살해

모든 진리를 파괴하고, 이즈와리 측을 살해할 수 있으면 고발국면을 끝내고 아래의 장면을 읽어주세요.

각 음표에 달린 입에서 하모니가 어우러진 비명이 울려 퍼진다. 악보가 찢어지며 피해자와 똑같은 모습의 환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진리 파괴를 축하하듯 거대한 마법진이 상공에 펼쳐져 존재를 알리며, 결말 마법의 기동준비를 마친다.

마지막 타격을 친 마술사의 마법묘사에 맞춰 이즈와리의 모습을 묘사해도 즐거울 것입니다.

무승부·패배

이즈와리를 물리치지 못했을 경우.

프리마는 철수하며, 해당 살인사건과 유사하게 발생하는 음악을 기반으로 각국에서 벌어진 연속 모방범죄로 현실세계는 두려움에 떨게되며 이즈와리 집단 심포니는 존재를 점점 강하게 확립합니다. 라오사의 부모님은 그 후로 라오사를 영영 볼 수 없게 되며, 이반과 라오사, 그리고 예카테리나도 언제 이 거짓이 들통날 지 알 수 없어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폐막

결말마법을 무사히 완료했다면 폐막에 들어갑니다.

GM은 아래의 내용을 읽어주세요.

결말마법의 마법진은 반면에 흩어지며 눈처럼 내려온다.

눈을 잠시 깜빡이자 어느새 당신들은 적색과 흑색의 체크무늬가 있는 전투공간에 서 있다.

코토와리 시스템의 통신이 공간 안에 울려 퍼진다.

「격파를 확인.

프로젝트 종료처리로의 이행 지시 및 로직과 마법의 분배 절차 진행중.

처리 결과는 결과는 개별로 고지됩니다.

현실세계도 안정적인 상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전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야기는 한단락 끝났다.

기타

사건 보고서

난이도 ★★☆☆☆

동기 ★★★★★

트릭 ★★☆☆☆

Whodunit ★★★★★

눈이 제법 내리던 겨울의 한 날.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지내던 알렉세이와 니나. 이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라오사. 이제 10대 후반으로 두 사람이 보기엔 아직 어리디 어린나이었다. 부부와 라오사는 최근에 자주 싸우다 못해 지금은 외출금지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다. 알렉세이는 바깥을 볼 수 있는 거실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고, 니나는 대문까지 이어지는 복도에 의자를 두곤 뜨개질을 하며 감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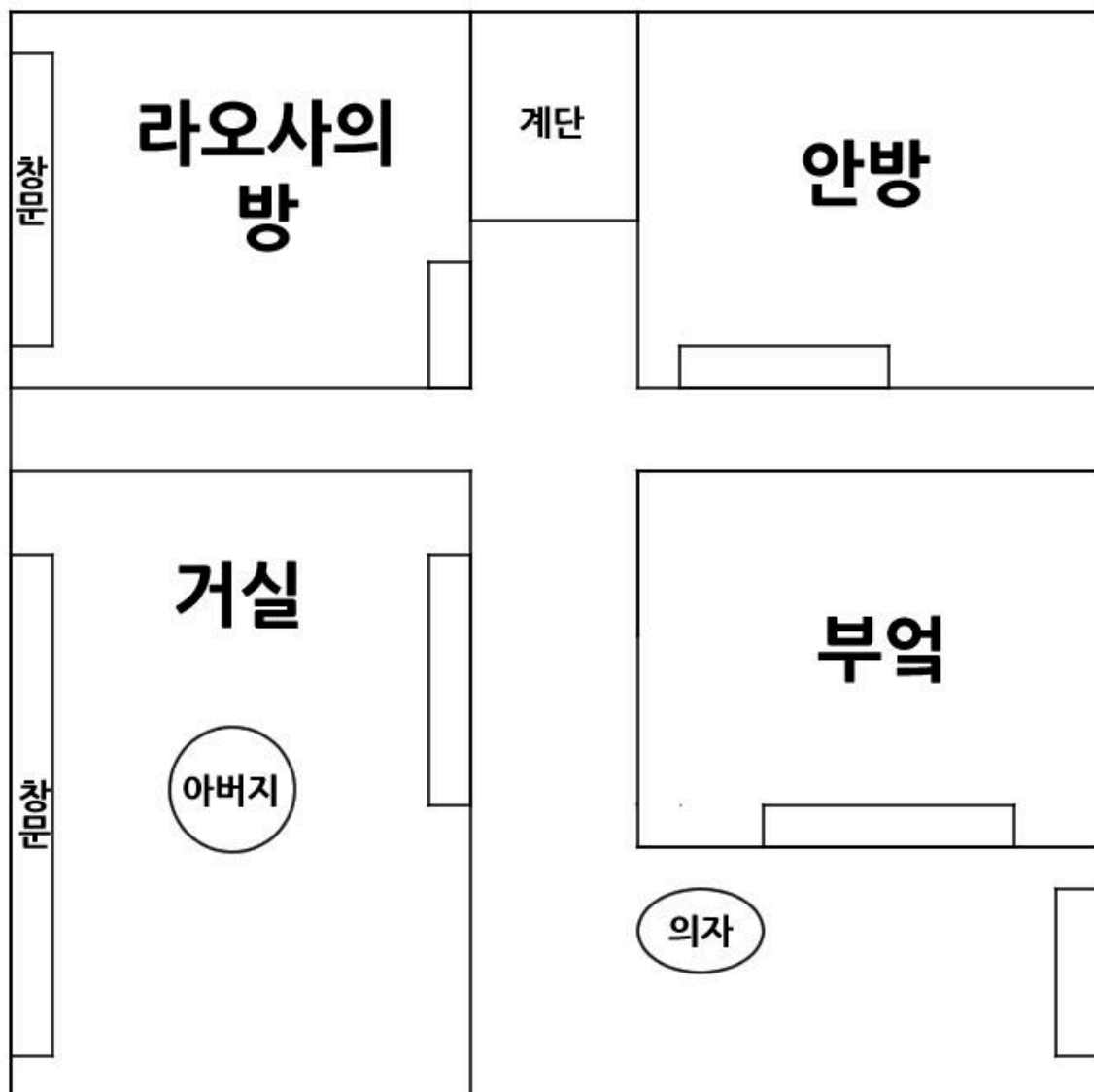
〈...지직〉

곧 저녁식사 시간. 저녁 준비를 마친 니나는 라오사에게 내려오라는 말을 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고, 이윽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한다. 커다란 창문은 열려있지 않았다. 니나는 얼른 알렉세이를

불렀으며, 두 사람은 라오사가 나간 것을 전혀 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몰랐으나 만약이라도 나갔다면 갈만한 장소는 하나 뿐이기에 이반의 집으로 찾아가자 마당에 있는 예카테리나를 발견했다. 예카테리나 왈 아까 점심 이후에 이반은 외출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후 각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음에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오사는 방에서 사라진 것일까? 사라진 라오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사조차 의심되는 상황. 그리고 이반은?
미스터리라는 틀을 무너트려 사건을 타파하자!

[지도 다운로드](#)



캐스트에 대한 초기선언

■캐스트 이름 / 라오사

피해자. 10대 후반의 여자아이. 이반과 연인관계다. 151cm 상당히 마른 체격.

부모님과 최근에 사이가 안좋았다고 한다.

■캐스트 이름 / 이반

10대 후반의 남자아이. 라오사와 연인관계다. 182cm 굳건한 체격.
라오사와의 관계는 무탈했다고

■캐스트 이름 / 알렉세이

라오사의 아버지. 40대 후반의 남성. 185cm 근육이 있지만 살집도 있어서 덩치가 크다.
예카테리나와 소꿉친구로 사이가 매우 나쁘다. 집안에 일에 있어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오사의 반발에 심란해하며 거실에 있었고, 니나의 부름에 라오사의 방으로 가서 라오사의 증발을 알게 되었다.

■캐스트 이름 / 니나

라오사의 어머니. 40대 중반의 여성. 174cm 말라보이지만 근육있는 체격.
소극적이며, 알렉세이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사건 당시 알렉세이의 말에 의해 대문까지 나가는 복도에서 뜨개질을 하며 라오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했다. 라오사의 사라짐을 알게 된 첫번째 목격자.

■캐스트 이름 / 예카테리나

이반의 어머니. 40대 후반의 여성. 167cm 통통한 체격.
알렉세이와 소꿉친구로 사이가 매우 나쁘다. 이는 예카테리나의 의견을 알렉세이가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려들기에 벌어진 꼴이다. 사건 발생 당시 마당에서 눈을 쏘고 있었다.

조서&각본서

각본서 시트 링크 첨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rPaAftntXf_XnSAGfEQqKt9alMSmisD1OTeGO0WmJU/edit?usp=sharing